

연중 제28주일

기도서 P. 455 B해

- 제1독서(지 7, 7-11)
- 제2독서(예 브 4, 12-13)
- 복음(마 르 10, 17-30)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전교주일 메시지□



10월은 전교의 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금년도 전교의 달에 즈음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의 선교 사명이야말로 언제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메시지 요약)

—선교는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가치들은 그 진정성이 다르고 비록 차등이 있습니다만 여러 세기의 전통을 통해서 쌓이고 쌓인 이 선(善)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선교활동이 행해지는 그 세계의 제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자면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취할 근본자세는 그리스도교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어야지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선교는 기존가치들을 복음의 빛으로 육성해야 한다.
 복음선교 활동은 복음을 받는 인간에게 갖춰진 가치있고 건전한 것을 부각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교는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가치를 건설해야 한다.
 선교활동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진 새 인간성을 건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활동이 불의, 압제, 소외, 착취 및 고독 등 적지않은 악들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 일은 거창하고도 고귀한 과업이며 그리스도 신자라면 모두 이 과업에 자기 나름대로 기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회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구원의 소식을 널리 퍼는 일은 선교사들의 특권이 아니고 하느님 백성 전부에게 지워진 중대한 임무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전통을 받고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그분의 교회의 성사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제명이 주는 구속력 때문에, 또 애덕의 연대성때문에도, 기쁜 소식이 여태까지 전해지지 않은 무수한 형제들을 모르는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우선 자기의 고통을 바치는 일과 기도로서 선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아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업을 이룩하셨다는 점으로 미루어 기도와 희생은 선교활동에 협력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나아가서 신자들은 관대한 구체적 원조로 선교활동을 후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교지에는 참으로 곤경이 크고 필요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모든 신자는 1년에 각사람이 5백원이상의 전교회비를 내서 전교활동을 지원합니다. (특별한 성의있는 분은 1년에 2천원 이상)



실증, 또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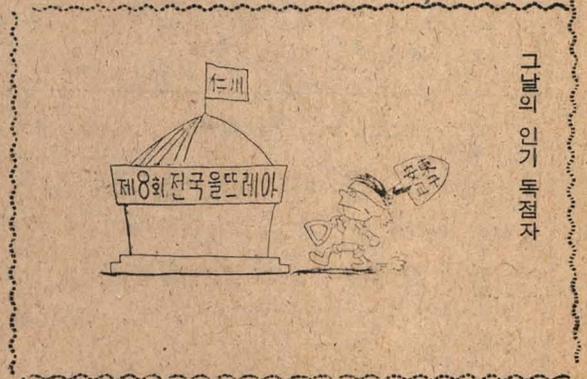
요사이 실증사건들이 잇달아 발생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경쟁이라도 벌이듯 줄을 잇고 있다.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의 고통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도대체 돈이 무어걸래 그리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서울의 사건으로 보아 부산이나 대구에서의 사건도 당사자들의 목숨이 실날에 걸려 있지 싶다. 왜들 그러는가?

실증(失證)이라는 말의 뜻은 「증적을 잃음. 행방을 알 수 없는 일. (법) 사람의 소재 및 생사를 알 수 없게 됨」이다. 뜻이 그러할진대 굳이 실증이라는 말마디를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사회를 불신(不信)의 시대라 일컫는다면 <신뢰>마저도 실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회면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진짜입니까?”고 물을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아이들의 어른들의 말을 듣고 “공갈”이라고 선뜻 대꾸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야당총재에 대한 제명처분만해도 그렇다.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은 야당의 총재를 꼭 그렇게 제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현실이란 말인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매우 <초조하고 쫓기는 듯한 몸짓>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적 실증>을 맛보는 것이다.

돈에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애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과 소위 국민을 대표한 선량들이 정치실증으로까지 물고가는 현실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 것인가? 깨끗이 대결할 수 있는 정치무대가, 정치질서가 아쉬울 뿐이다.

숲 정 이 산책





우리의 신앙선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의 종가인 천주교는 18세기 이조 시대에 이 나라에 들어와 인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열었다. 교회사의 출발기부터 백여년 동안 만여명의 순교자를 내고 우리의 선열들은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냈다.

우리는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은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오늘 이 나라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지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가 현대 세계에 나타나는 현실적 정황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의 역사적 상황의 신앙생활의 가장 값진 터전임을 확인한다.

(2) 우리는 다수의 비신자들을 포함한 동포 형제들에게 말로써만 하느님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비인간적 사회에서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체험되도록 그리스도교로서의 모범된 행동을 앞세우기로 다짐한다.

(3)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믿으며, 아울러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느님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현세 질서의 썩신”을 부단한 의무로 확인한다. 현실개혁 활동에 몸바치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복음선포 활동이다.

(4) 애굽에 의해 종살이 하던 고통을 통해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으로 묶어주고, 해방과 낙원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적 원형이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민중에게 가해지는 환난을 민족 구원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5)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한 사람에게 잘해 주는 것”이 곧 당신에게 잘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보잘것 없는 한 명의 농부, 미약한 한 명의 여공이 매맞고 목숨을 잃게 하는 권력과 폭력은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의 “인권”이야말로 원자탄의 핵보다 위력이 클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결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 아니다. 종교는 낮은 사람들을 들어 높이고, 거만한 자들을 내쫓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권세있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는 힘인 것이다.

“인간이 제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씀에 우리는 전폭으로 따르며, 국가 사회의 잘못된 법과 잘못된 제도는 언제나 신속히 개혁되어야 함을 우리는 주장한다.

(6) 우리는 동서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전조가 된 한국에서 그 불행한 적대감의 고정관념과 무력대결이 지

노추동 천주교회에서 제 1회 신앙강좌를 연다. 우리의 신앙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다 똑바로 알아듣기 위해서 성서를 중심으로 공부해보자는 것이 강좌를 연 목적이다.

천주교 신자들의 교리공부는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시작되어 세례를 받는 그날로 끝난다고 표현해서 지나칠까 하는 반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정해진 기도문 벗출을 의무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우들은 없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그것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다.

뜻있는 교형자매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쉽다.

강좌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부 나자렛 예수의 일생-예수의 탄생과 어린시절 세례자 요한과 스승 예수, 세상의 빛과 생명, 군중과의 충돌과 생명의 빵, 십자가와 부활.

제 2부 신약성서의 형성과 역사적 배경-신약성서가 형성된 과정, 지리적·정치적·종교적 상황, 예수의 발자취.

제 3부 신약성서안의 문제점-예수의 기적 문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 문제, 예수와 성령과의 관계 문제.

강좌는 10월 21일(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주일 오후 8시에 열린다. 강좌방법은 강의와 슬라이드, 그룹 토의로 진행된다. 11월 28일(수)까지 계속되는 12강좌의 수강료는 1천원이다. 관심있는 분들은 노추동 천주교회(전화 2-7032)로 문의하면 된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두터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강좌를 소개한다.

양되고, 인류의 화해와 평화 건설의 새 세기의 역사가 이 나라에서 발달되기를 희망한다. 이 역사적 과업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교들은 진리의 빛, 정의의 목표, 사랑의 원동력을 지니고 굳세게 전진해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1979년 10월 9일

천주교 푸르실로 한국 협의회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지점
모집



순수자연식품 청정 크로렐라

CHLORELLA-ONE

크로렐라一元

이서구(토마스 아퀴나스)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앞 3-9519
전주시 교사동 시민치과 앞 3-7898

사도신경

신자들의 기도

봉 헌(제창)...주께 드리네(새 53) ※ 본당별로 사도회 책임하에 헌금

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가겠네.
<후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 주 앞에 모두 드리네.
2.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3.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거룩하시다(제창)

천주의 어린 양(제창)

영성체 송...너희는 내가 당하는 온갖 시련중에 항상 같이 있었으니

내 너희에게 왕권을 주어,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리라.

영성체 노래(제창)...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공 422), 형제에게 베푸는(공 387)

- 1.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자여, 주의 빵을 나누세
 - 2. 주의 진리 서로 나누세. 주의 진리 서로 나누세.
 죄악을 피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세.
 - 3. 주의 기쁨 서로 나누세. 주의 기쁨 서로 나누세.
 주님의 나라가 우리안에 있으니 서로 기쁨 나누세.
 - 4. 주의 희망 서로 나누세. 주의 희망 서로 나누세.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서로 희망 심으세.
- 1. 우리가 어느때 주님께 음식을 드렸고, 목마른 주님께 마실것 언제드렸나.
 <후렴> 진실히 베키 이르노니, 미소한 형제중에 하나에게 베푸는
 모두가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 2. 우리가 어느때 주님을 집에 모셨고, 헐벗은 주님께 입을 것 언제드렸나. <후렴>
 - 3. 우리가 어느때 주님을 돌보아 주었고, 병드신 주님께 문병을 언제하였나. <후렴>

시성을 위한 기도

모든 성인들의 덕행으로 찬미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당신은 일찌기 당신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103위 우리 순교자들을 복자로 선포하여, 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복자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환난중에서 더욱 보호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특은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빨리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우리 복자들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퇴장노래(제창)...복자 찬가(정 127)

제 4 차 순 교 자 현 양 대 회

일 시 : 1979. 9. 30(일) 10시

장 소 : 전 주 실 내 체 육 관

주 최 :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대 회 지 향 □

제4차 순교자 현양대회를 갖는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뜨거운 몸짓으로 행동해야 한다.

일찌기 야훼 하느님은 예언자 아모스의 입을 빌어서 마음에도 없는 제물과 찬미를 꾸짖으셨다. 우상을 만들어 받드는 일도 나무라시며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아모스 5, 21-27)

목숨을 바쳐 진리와 정의를 지킨 순교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가?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

고백하자! 회개하자! 자, 이제는 또 일어나서 가자!

□ 대 회 일 정 □

제 1 부...성가경연 · 무용과 연극발표 · 웅변 · 미사 · 시상식

제 2 부...순교사로 전시회 관람 · 순교성지 참배(각 본당별로)

<순교자 현양대회 합동미사>

□ 입당전 노래...주님을 찬미하라(새 26, 합창단)

□ 입당 노래(제창) 순교자의 믿음(공 275)

1.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순교의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후렴> 순교의 믿음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리라.

2. 순교자 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왔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리라.

3. 순교의 믿음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리라. 인자한 말과 행실로 이 믿음 전파하리라.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제창)

□ 제1독서...마카베오 후서 6, 18, 21, 24-31(당신이 두렵기에 즐거이 고통을 당하나이다)

□ 총 계 송...눈물로 씨 뿌리던(공 276, 합창단)

□ 제2독서...로마서 8, 31-39(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하느님 사랑에서 빼어놓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알렐루야(공 4, 합창단)

□ 복 음...요한 17, 11-29(세속은 그들을 미워하였다)

□ 강 론...교구장 김 재덕 주교



가톨릭 농민회원(오원춘)

납치 폭행사건 3회 공판기

8일 아침부터 대구 법원 정문 입구에 무장 경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삼엄하게 출입통제를 하는 꼴이 될가,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더니 예측대로 또 하나 각본극이 연출되고 말았다.

뒤가 그리 쫓긴다고 식사까지 거르며 장정 12시간 가까이를 쉬지도 않고 강행하던 공판을 변호인들의 증거제시, 추가 증인신청, 변론시간 연장 요구를 묵살하고 전격 처리. 밤 9시 반 경 변호인들과 신부, 수녀, 농민회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검사의 3년 구형으로 그만 징을 치고 말았다.

하지만, 재판관을 보고 들은 사람이면 삼척동자라도 믿지 않을 수작들이었다고나 할까. 동원된 기관원, 교도관들 마저도 어이없어 킁킁 웃어대는 가운데 관련 조작의 속임수가 증인들마다에 속속 부로뎌 검찰은 온통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특히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한 김두한(울릉도 온정식당 주인 아들)은 얼떨결에 "TV 인터뷰 선물로 금반지를 받은 사실"과 도경에서 대준 돈으로 오원춘 영치금(3만원)도 넣어주고 식사대도 받았음을 발설, 대수 증인들의 속을 "뽕히 드러내 보여줬다. 신부님들(유강하, 정희옥 신부)의 증언엔 판검사들도 고개를 떨구고—

권력의 각본대로 왜 가는 것. 힘없는 우리베야 어쩔 수 있을까만 하여튼 그 작태만은 못내 밍살스러웠다. 아무튼 갈수록 조작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질지 두려워 몹시도 당황했나보다. 하기가 도둑은 언제나 말이 저리고 오래가면 꼬리가 잡히는 법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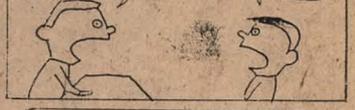
하여, 우린 다시 외치며 돌아 왔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 재판은 이겼어도 형은 받아야 하는 세상이 한심할 뿐이라면서...(요한 記)

요섭이 (324) 김병오

증인이 오원춘을 위한 영치금을 냈지요? 예



그 돈은 어디에서 생겼지요? 모기관에서 주어서 냈으



증인이 깐반지는 모기관에서 선물로 받은거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래지요? 아 아님니더



◀ 긴급공고 ▶ 정의·평화를 위한 모금

우리의 지속적인 사회정의 구현 활동과 민주·인권 회복 운동을 위하고 또 구속된 성직자, 농민, 민주인사, 양심수인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값진 성금과 협조를 바랍니다. 숨은 독지가들...

직접 또는 본당 신부님을 통해 교구청이나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정영위-

개 (축) 업

(오셨다 하면 웃고 갑니다)

환산부인과

구 법원사거리 원불교 옆
전화 ⑤ 5 4 3 8
원장 황 열

□ 남성의 멋을 드립니다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 철 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M^c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매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번
유 리 기 가 나

★ 양심을 찾자 ★

현대 칼라 특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④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 피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결점,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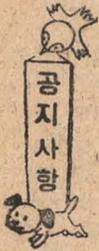
신진프로판까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④ 5 4 4 8 · ④ 1 0 7 1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로사리오 성월(10월)을 맞아 군인들에게 가락지 목주를 선물합니다
로사리오 1만단 바치기 운동을 시작하는 병사들에게 가락지 목주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정승현 군중신부님의 하소연에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뜻이 있으신 분은 성금을 줄경이 편지철로 보내주세요. 성금에 맞게 현양대회 기념목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만원(목주 20개)씩만 보내주실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2.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10월 25일(목)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에서
강사-박도식 신부 주제-실존주의의 의미
 3. 문학강좌...10월 20일(토) 오후 6시30분, 가톨릭센터에서 강사-구중서 선생 주제-오늘의 삶과 문학
 4. 제 1회 5지구 학생교리 경시대회 및 체육대회-성황리에 마칩
교리: 1위-남원, 2위-임실, 3위-상관, 배구-남원, 텃치볼-상관, 줄다리기-남원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서학동 35,250원, 장계 김중환 1만원, 한들진자 2만원, 정읍 이요안나 1만원, 서수산나 2천5백원, 김계 1만5천원
- 수재민을 위한 성금...정읍(51,600원), 한들(14,500원), 효자동(7,600원), 김계(15,000원)
- 군인들을 위한 목주 성금...정읍 김현 1만원, 교구청 익명 2천원, 스테파나 5천원, 중앙성당 방지거 3회 5천원, 이리 동정성모회 메리수녀 1만원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목 해
보좌 신부	살 정	수 태
보좌 신부	정 이	현 복
사도 회장		

1. 축! 영명: 정태현 신부님
※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우리아: 14일(일) 오후 2시
 3. 첫열성체 교리: 15일(월)~27일(토) 오후 4시30분-5시30분
 4. 중·고학생 성가연습: 15일(월) 저녁 8시30분부터
 5. 가정방문: 16일(화)부터 합니다
 6. 교무금을 월별로 납부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75,235원

5. 어머니 성가연습(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많이 나와 배웁시다

지난주 봉헌금: 332,57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 현	탁 인
사도 회장	광	인 구

1. 선교주일: 10시미사 후 L.M 간부회
 2. 반장님회의: 10시미사 후
 3. 견진자 특별교리: 15일~20일 매일밤 8시
 4. 성령기도회: 17일밤 8시
 5. 견진일: 21일 10시미사
- ※ 주석 특별헌금: 156,440원
군인특별헌금: 45,200원
- 지난주 봉헌금: 51,000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열
보좌 신부	나 김	성
사도 회장		

1. 제 1회 신앙강좌: 21일부터, 매주(일·수) 오후 8시-9시30분.
대상: 전신자,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토요일 성령 기도회: 매주(토) 오후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전교회비를 납부합니다: 전교는 전신자 의무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전교회비를 납부합니다(10월중에)
일반회비: (일년에) 500원이상,
특별회비: 2,000원이상
- 지난주 봉헌금: 153,275원

(순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10월 16일 오후 2시
 2. 성모회 월례회: 10월 21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식: 10월 21일 오전 9시
 4. 반상회 일정 안내
10월 15일(월) 진북2동 3반 오후 8시
10월 16일(화) 진북2동 4반 오후 8시
10월 17일(수) 진북2동 2반·5반 합동
10월 18일(목) 진북2동 1반
빠짐없이 반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축기금 내주시는 분
이불순 22만원, 최익수 15만원, 박성녀 1천원, 이준희 5만원
- 지난주 봉헌금: 173,64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복
보좌 신부	전 유	재 상
사도 회장		

1. 사도회 임시총회: 공식미사 후(회의실)꼭 참석 바랍니다
고분,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 사도회 임원
 2. 21일은 전교주일입니다
신자 배가운동에 앞장서 나갑시다
 3. 부녀회, 비누판매 많은 협조 바랍니다
50개들이 1상자 7,500원
 4. 축 견진: 64명 주님의 군대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전신자전 찾아가세요
 5. 헌인성사를 받으실 분은 1개월전에 본당신부와 면담 바랍니다
 6. 본당일예, 또 행사에 교우님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본당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955원 교무금: 148,85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수
보좌 신부	김 기	유 석
사도 회장	유	성

1. 자모회: 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성화회 야유회: 지리산 뱀사골
 4. 성가정회: (월) 오후 2시
 5. 사도회 피정: 10월 30일~31일(광주 피정의 집)
임원 동 반회장 각 신심단체장
 6. 군인들에게 가락지 목주 회사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현재: 110개
※ 뜻있는 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07,89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팔
보좌 신부	박 성	성 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전성권씨 맥)
2.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만 7시로
3. 지난주일 주일학교 결석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 따지지, 않도록 보내주세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4. 중·고생 미사교리에 따지지 않도록 합시다

(파티마)

전화 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다음주일은 전교주일입니다
교황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 전교회비를 내도록 합시다
 2. 본당 살림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교무금이 아직 절반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때 일수록 서로 협력하여 본당의 살림을 꾸려가도록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67,560원